

데스크시각



홍행기  
정치부장 겸 편집부국장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호남 방문이 이달 들어 부쩍 늘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았으니 지지세 확산을 위해 다급해진 것이다. 언론사에 있다 보니 지역 여론을 살피려는 이들 후보와의 대화 자리도 덩달아 많아졌다. 여럿이 만나는 자리이니 만큼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주화의 성지이자 정권의 심장부, 광주를 찾으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건넰다 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선거에 나설 만큼 두터운 연륜과 화려한 경력을 갖춘 이들 후보와의 대화는 정국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직접 만나 서로의 무릎을 맞대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언뜻 정도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화기에매' 한 자리가 끝난 뒤 또 다른 일정에 맞춰 돌아서는 후보들에게 손을 흔들고 나면 중앙 정치인과 만남에서 항상 그랬듯 아쉬움이 밀려온다. '호남의 정신, 호남의 과거보다는 호남

호남 정치엔 봄이 왔다지만

의 미래, 호남의 발전에 좀 더 대화를 집중했어야 했는데…"

호남은 과거 '한과 소외의 땅'이었다. 힘겹게 살아온 부모들은 자식이라도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땅 팔고 소 팔아 아들·딸을 서울로 유학 보냈다. 하지만 좌절과 고난을 겪으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일찍 눈을 떠 버린 호남의 아들·딸들은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지역 경제엔 찬바람만 불고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6년 겨울, 23주간의 촛불 집회 열기에 힘입어 얼어붙었던 호남에도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2017년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아버지를 잃은 유족을 따듯이 끌어안은 순간, 1980년 5월에 멈춰 서 있던 광주의 시계는 37년 세월을 순식간에 뛰어넘어 한국의 현실로 복귀했다.

그로부터 1년, 광주·전남은 정치의 변방에서 중앙부로 이동하며 호남의 정신과 정치적 영향력을 증명해 보였다. 지역 출신 인사들이 총리를 필두로 당·정·

청에 두루 포진하게 됐다.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을 눈여겨본 여야는 '호남 끌어안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이지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연일 새 기록을 써 내려가는 폭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지역 경제에는 찬바람만 뿜뿜 분다. "호남이 언제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나?"라는 자조는 현재 진행형으로 멈출 줄 모른다. 청년 취업은 안감생생, 기존 취업자들도 해고의 불안에 잠을 설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전공대를 필두로 한 에너지밸리 조성에 나서고, 광주형 일자리 마련과 도로·철도 등 SOC 건설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에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당장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 지역 경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회생의 관건은 '속도'다. 경제를 살릴 수단인 각종 정책이 수립되고 방향이 정해졌다면 최대한 빨리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경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고 각 지역에 대

한 국가 재원의 배분권을 지닌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더 많은 배려와 지원 절실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이상, 기호순) 등 당권 주자 세 명이 최근 광주·전남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일제히 발표했다. 광주형 일자리 정착과 한전공대 및 에너지 밸리 조성, SOC건설 지원 등을 약속했다. 최대한 조기에 착공 또는 지원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 후보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 가식이 아닐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호남을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빛 좋은 공약만으론 지역민의 통장을 두둑하게 해 줄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고 이끌어 온 '호남 정신'은 너무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제는 '호남 발전' 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폭 추위는 환한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 /redplane@

은펜칼럼



강대석  
시인·행정학박사

도시 농부의 여름 나기

식탁에 오를 만한 채소는 거의 다 심는다. 전문 농사꾼들이야 소폭목다량 생산으로 작업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지만 초보 농사꾼인 나는 재미 삼아 이것저것 심는 탓에 일만 많고 소득은 없다. 소득이라면 땀 흘려 일하는 운동 외에 아재 가게를 조금 덜 이용하는 것뿐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날씨가 순조롭고 비가 적당히 내려주면 적은 노력으로도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지만 올해처럼 자연이 도와 주지 않으면 인력으로 되는 일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농사는 시작하는 순간 경을 염두에 두는 순간, 봄부터 가을까지 잡초는 농부와 숨바꼭질 하듯 뒤돌아서면 다시 돌아온다. 그 생명력만 놓고 보면 잡초 같은 인생이 가장 부러운 존재일수도 있겠다. 잡초와 더불어 농부를 괴롭히는 천적이 병충해다.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 이란 생각으로 가급적 농약을 자제하지만 농약 없이 불곰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옛것에는 밭에 나갔더니 아직 밭이 들지도 않은 고구마 밭을 멧돼지가 그 사이에 다녀갔다. 고구마 두렁을 줄줄이 파헤쳐 이제 겨우 손가락만한 고구마를 모조리 파먹고 줄기를 짓밟아 초토화시켜 놓았다. 무례한 녀석들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미리 시식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고구마 세 두렁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칠 여력은 없으니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 멧돼지 다음으로 농부들로부터 가장 미움 받는 조수는 까치일 것이다. 까치는 영리하여 땅콩과 다른 작물을 구부터 잡초와 병충해와의 싸움이다. 친환경을 염두에 두는 순간, 봄부터 가을까지 잡초는 농부와 숨바꼭질 하듯 뒤돌아서면 다시 돌아온다. 그 생명력만 놓고 보면 잡초 같은 인생이 가장 부러운 존재일수도 있겠다. 잡초와 더불어 농부를 괴롭히는 천적이 병충해다.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 이란 생각으로 가급적 농약을 자제하지만 농약 없이 불곰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포기한 논밭들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라 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갖가지 편법으로 도시민들이 농지를 매입한 후 방치함으로써 여기저기 초목이 무성한 논밭을 보면 농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쓸쓸하다.

농촌의 고령화는 너무 심각하다. 자녀들은 모두 외지에 나가 있고 노부모들만 농촌을 지키고 있으니 세월이 갈수록 빈집은 늘어난 간다. 한낱에도 마을 안길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문득 넘쳐나는 도시 은퇴자와 청년 실업 인구를 농촌과 연계하여 상호 활로를 모색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계절의 순환은 어김이 없다. 폭염 속에서도 창밖 하늘은 날마다 깊어지고 조석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가을이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음이 느껴진다. 툭툭이 짙을 내어 뒷밭을 가꾸고 땀 흘리며 자연과 교감하는 도시 농부의 삶, 할 일 없는 은퇴자에게 또 하나의 소확행(小確幸·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기고



김복실  
전남도의원

폐사 가축과 소각장

대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일 뉴스 때 마다 폭염으로 인해 가금류 산란율이 10% 가량 떨어지고, 육계는 성장이 더뎠다. 찢소 우유 생산량은 5%가 줄어 농가마다 스프링클러나 선풍기를 가동하고 영양제를 지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듣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종합 기술 지원단을 구성해 환기 시설 설치 등 컨설팅에 나서 9월까지 축산 농가 고온기 가축 관리 지원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는 소식에서 피해의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또 가축이 죽으면 신속하게 사·군·구에 신고하고 이후 방역 기관의 조치에 적극 따라 달라고 게재된 신문 기사를 보고, 이 모두가 천재지변이나 다행했다고 생각했다.

전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나 썩통 더위로 인한 가축·가금류 폐사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요청을 해보았다. 자료

에 따르면 2016년에는 폭염으로 86만 2000마리가, AI로는 122만 4000마리가 폐사했다. 2017년에는 폭염으로 101만 2000마리가, AI로 114만 5000마리가 폐사했다.

가축이나 가금류가 폐사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사한 가축을 처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썩통더위로 폐사된 가축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매장된다면 이 나라 좁은 국토는 어떻게 될까. 갈수록 심해지는 온난화와 기후 변화, 물 부족 국가로 이미 접어든 우리나라는 전국의 43% 약수터가 고갈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지하수 오염 걱정부터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미 사망도 죽으면 매장보다는 화장과 수목장을 하는 추세이다. 이에 견주어 보면 가금류 가축도 소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

을까? 전국 가금류 소각장을 조사해봤다. 전국에 14개소(서울 1, 경기 4, 충남 7, 충북 1, 전남 1) 밖에 없으니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비가 오면 쓰려고 우산을 마련해 놓듯이 아름다운 강산은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좀 불편하더라도 농로길 포장 안 하면 어떨까? 적체 적소에 선제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벼 꽃이 피고 알곡이 영글어 가면서 가뭄에 신음하는 논·밭 때문에 물 대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관정 말고는 당장 뚫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하수마저 오염된다면 다가를 재앙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전남부터 동물 소각장을 추가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자동차에도 소화기 비치해야

최근 차량 화재가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화재는 전국적으로 연간 5000건이 넘으며 하루 평균 13건 이상이고, 올해는 7월까지 3000건에 육박한다.

자동차는 차체에 붙은 기름때나 가연성 전선 피복 등으로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 경미한 외상뿐만 아니라 자칫 사망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화재의 초기 진압이 중요

하다. 차량 화재 시 초기에 차량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신속히 불을 꺼 더 큰 화재로의 확대를 막을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

이처럼 중요한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보자.

첫째, 소화기를 붙어 난 곳으로 가져가

소화기 몸체를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둘째, 바람을 등지고 노즐을 빼서 잡고 불 쪽을 향하게 한다. 셋째, 손잡이를 힘껏 움켜잡고 빗자루로 쓸 듯이 끌고루 뿌린다. 차량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시 신속히 불을 끌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김병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교>

社說

6년 만의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태풍 '솔릭'(SOULIK)이 내일 광주·전남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강한 중형급인 솔릭은 지난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지만 과거 큰 생채기를 남겼던 '곤파스'나 '루사'와 유사해 자칫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솔릭의 강풍 반경은 380km이며 중심 기압은 950hPa(헥토파스칼)이다.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36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인 솔릭은 이후 내일 오전 목포 앞바다를 통과해 서해안을 거쳐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 대각선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로와 강도 그리고 세기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솔릭과 가장 비슷했던 태풍은 2010년 9월의 곤파스다. 곤파스는 사망 여섯 명 등 17명의 사상자와 1761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는 2002년의 '루사'와도 예상 경로가 유사하다. 루사는 고흥으로

상륙해 강원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246명의 인명 피해와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안겼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즉 위험 반원에 위치해 강한 바람과 함께 수백mm의 폭우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5~8m의 높은 물결과 함께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광주·전남도 등 자치단체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태풍은 기나긴 폭염과 고수온 및 적조를 잠재울 수 있지만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하천 범람과 침수, 산사태와 축대 및 옹벽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점검과 보강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간판과 창문 등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통합 무안공항 주변 교통망 구축 시급하다

광주민간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용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지역 하늘길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거점 공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은 지난해 사드 여파로 '정기선 없는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이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무안공항 여객기 운항편수는 200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202대)보다 66.9% 증가했다. 탑승객 수도 29만3199명으로 전년(16만1021명)보다 13만2178명(82.1%)이 늘어났다.

이처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간 50만 명대의 무안공항 이용객이 광주공항과 통합된다면 연 230만 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 KTX가 무안을 경유하게 되면 충청권까지 교통 접근성이 용이해 이용객 확보

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내외 노선 다변화로 인한 각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통합 시 폭발적인 수요증을 대비해 공항 시설과 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수요증에 대비해 화물 활주로, 수화물 컨테이너, 주차장 확충 등도 미리미리 해나 가야 할 것이다.

KTX 등 무안공항 주변 교통망 구축 역시 절실하다. 공항이 통합되면 광주 시민은 당분간 무안공항까지 가는 데 버스나 승용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공항버스 노선 연장, 시외버스 운행 등 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좀 더 발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광주 시민이 KTX를 이용해 무안공항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중 교통망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올여름 얼마나 무더웠던지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태풍'이 오길 기다렸다.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에,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한반도의 무더위를 식혀 줄 '호자 태풍'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암밭'과 '종다리' 등 올해 발생한 태풍은 대부분 한반도 주변에서 소멸되거나 비껴갔다.

'태풍'(颱風)은 수온이 27도 이상인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이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면 태풍이라고 부른다.

태풍의 두 얼굴

저위도 해상에서 발생해 고위도로 이동하며 세력을 키우는 게 특

징이다. 태풍은 매년 30개 정도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매년 평균 3.1개라고 한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은 해일과 홍수 등을 일으켜 인명과 재산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로 꼽힌다. 반면 태풍은 가뭄을 해결하고, 수자원의 중요한 공급원인 물 부족 현상을 없애 주기도 한다.

또한 폭염이 뒤덮은 한반도의 더위를 식혀 주고 바닷물을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적조 현상 등을 완화해 바다 생태계

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해 준다.

그래서 유난히 길고 더운 올여름, 별 피해 없이 폭염을 식혀 주고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호자 태풍'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한반도를 향해 지금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은 폭염을 끝내 줄 '호자 태풍'은 아닌 듯싶다. 강한 중형급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한다고 하니 말이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직접 관통하는 것은 지난 2012년 9월 '산바' 이후 6년 만이다.

그동안 한반도에 직접 상륙했던 태풍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2002년 전남 고흥 해안으로 상륙한 태풍 '루사'는 이재민 8만8000여 명, 사망·실종 246명, 재산 피해 5조51419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2003년 경남에 상륙한 태풍 '매미'는 131명의 인명 피해와 4조200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기록했다.

태풍 '솔릭' 역시 '호자 태풍'이 아닐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던 만큼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지국) (구독·신청·배달·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